요한복음56 나사로야 나오라

(요10:39-11:16))

39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40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41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1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3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5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7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 하느니라

11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13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14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16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요한복음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심이 여러 가지 이적들과 함께 제시가 되고 아울러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 그 두 번째 부분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 분을 배척하였는가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을 함으로 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너희들 중에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목숨을 끊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지를 십자가에서 실행하시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첫 번째 강해 시간에 나누어 드린 구조는 조금 달랐습니다. 기억나세요?

저는 그 때 요한복음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드렸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 (1:1-18)까지의 서론 부분이었고, 두 번째 부분이 (1:19-12:50) 의 7가지 표적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13:1-20:31)까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마지막 기간 동안의 강화와 기도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고, 네 번째 부분이 (21:1-21:25) 후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두 번째 부분을 표적의 책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세 번째 부분을 영광의 책이라 부른다고 했지요? 그러한 구조로 요한복음을 보면 서론, 표적들, 표적의 실제화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후기 이렇게 깔끔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이 죽은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책인 13장에 붙여서 설명을 해 드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

13장부터 전개되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주 상세하게 계시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는 총 일곱 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고,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고,

네 번째 표적이 오병 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며, 다섯 번째 표적이 물위를 걸으시는 사건이고, 여섯 번째 표적이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 분이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표지판들이라 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들을 오로지 아래 세상의 물질적인 현상으로만 깨닫고 그 물질적인 현상이 어떠한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는지 터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모두 ‘표적-오해-강해‘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 표적의 책이 어떻게 열립니까?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가 어떻게 열리지요?

(요1:51)

51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1:19-12:50)까지의 표적의 책 제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의 일곱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인자 위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생명력이 부어지게 되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떡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물 위를 걷는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과 현상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국한된 것이라 했지요? 성령이 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굳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늘의 풍요를 설명하거나 구원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새 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적 표적들인 요한복음의 표적들의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그 표적으로 요한복음의 표적이 끝이 나고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구약의 종결과 완성의 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수인 7을 써서 일곱 번째 표적인 것입니다. 구약의 완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그 표적들의 실체이신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11:25~26)

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뒤늦게 오시는 예수님을 마중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5절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어구는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어구입니다. 그건 구약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이 설명이 되는 시대는 구약시대입니다. 그런데 26절에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믿음’과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영원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아이오’라는 단어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약의 사건, 즉 나사로의 부활사건은 살아서 믿는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신약의 복음의 그림자임이 그 두 어절의 대조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풀려나게 되는 교회의 이야기를 구약 적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야기가 향유를 주께 부어 주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마리아의 소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요11:2)

2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마리아가 주께 향유를 붓고 주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은 다음 장인 12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이 11장에서 서둘러 12장의 마리아 이야기를 소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건 이 나사로의 에피소드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미리 힌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의 개괄적인 틀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9절부터 4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10:39-42)

39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40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41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나사로의 사건 바로 앞에 예수님의 거절당하심과 요한의 증거,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전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없어도 될 부분 같아 보이는데 요한이 굳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는 11장으로 가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진행이지요?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이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요한의 증거가 이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납니다.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그 표적은 7일째 되던 날에 일어난 표적이었지요? 역시 나사로의 사건도 일곱 번째 표적입니다. 둘 다 일곱 번째의 것이고 그 앞에 나열되는 거절당하시는 예수님, 요한의 증거, 많은 이들의 돌아옴 등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표적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른 그림이라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러한 동일한 구조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잔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슬픔이지요? 거기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포도주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비로소 그 슬픔의 잔치는 기쁨의 잔치가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슬픔입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적 은혜가 그에게 쏟아 부어져 그가 살아났습니다. 기쁨입니다. 둘 다 슬픔에서 시작하여 기쁨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기쁨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개입하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 율법을 기각해 버리는(정결예식을 행하던 항아리에 물이 없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잔치를 잔치로 완성하는 십자가 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십자가 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교회의 출애굽 사건, 교회의 구속 사건이 그림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로 가 보겠습니다.

(요10:40)

40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주님께서 요단 동편으로 피하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시는 모습은 요단 동편에서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이 세상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 여리고와 같은 사망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시는 형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여호수아의 인도 하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과 같은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야기가 요단강 저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어 표기가 예수인 것은 다 아시지요?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한번 볼까요?

(수3:1~6)

1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싯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2 삼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3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4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이천 규빗 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 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 하였음이니라

5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6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 가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막 건너가기 전 요단 동편의 상황입니다. 2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어구가 나옵니다. ‘삼일 후에’라는 어구입니다. 그 어구는 ‘사흘째에’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사흘 후에’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실 때에 며칠을 더 유하시다가 가시지요?

(요11:6-7)

6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7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주님도 이틀을 더 머무시고 사흘째에 요단강을 건너가시지요? 그 사흘이라는 단어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요2:1)

1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건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잔치가 잔치답게 완성된 표적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정확하게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말씀을 통하여 ‘사흘’을 암시함과 동시에 ‘나흘’이라는 단어도 함께 사용하여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4:21~24)

21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2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23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24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서 여호수아는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장자들의 사망을 모두 먹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있는 것이며 요단강을 건너 철옹성 여리고를 한 번에 무너뜨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도저히 상대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사망, 세상 권세를 예수님께서 홀로 어린양의 십자가로 박살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사건 바로 다음에 우리 주님의 유월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11:53~56)

53 이 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 하니라

54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 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55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의 현장에 있던 자들이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따라서 기적이 믿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 기적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걸 보세요. 그리고 바로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죽음에 붙들려 있던 나사로가 그 죽음에서 풀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에는 주님의 유월절, 즉 어린양의 십자가가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죄한 어린양의 피에 의해 죽어야 할 장자들이 거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구원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처음 지킨 것이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수5:10)

10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 달 십사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사망에 사로잡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은 무죄한 어린양의 희생에 의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의 원형인 예수님의 유월절이 모형으로 그려진 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이며 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교회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교회를 살려내는 것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 나사로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들이 영광을 얻는 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11:4)

4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고 번역이 된 부분은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병으로 말미암은 나사로의 죽음도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깜짝 쇼를 보여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것과 하늘의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시적으로 역사와 공간속에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는 상태가 바로 ‘독사’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으심과 섬김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극명하게 드러난 십자가 사건을 예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가능한 시체들이었던 우리가 전적으로 아들의 공로에 의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와병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다 가신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우리말 개역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요11:5-6)

5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6절 앞에 헬라어 ‘우운’ ‘그러므로’가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단순히 병이나 고쳐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나사로에게 가시지요?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흘 동안은 그 시체 주위에 머물다가 나흘째에는 완전히 육체와 격리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여지마저 철저하게 부수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죽은 자라는 것을 알리시고 인식시키시기 위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내가 풀풀 나는 때에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완전히 죽으셔야 하거든요. 사망에 먹혀 철저하게 죽은 나사로의 인생이 되셔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망을 폐기처분시켜 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사망과 완전히 결별을 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은혜의 십자가가 지금 나사로의 에피소드에 오롯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게 놔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나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 굳이 거기에 안 가셨던 것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치시려 마음을 먹으셨다면 요단 동편에서 ‘나사로야 나아라’하고 말로 고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그에게 가신 것은 우리 교회에게 전하실 메시지가 있으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어구와 ‘나흘’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쓰였는지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본문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을 기뻐하십니다.

(요11:14-15)

14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함이라

나사로가 죽어야 그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당신이 계시지 않았던 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를 뭐라 하십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당신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를 죽이시는 것도 불사하신 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를 죽도록 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 자식이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라면 자식의 다리를 부러뜨려야지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엉뚱한 길로 달려가는 자식의 앞을 가시로 담으로 막아서고 그래도 가겠다고 하면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는 그 것이 아버지의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마치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시는 것 같이 우리를 대우하실 때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병이나 고쳐주고 목숨이나 부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요11:35~37)

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37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하더라

여기보시면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참 많이 사랑했었나보다. 저렇게 우는걸 보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추켜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37절을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정 반대로 ‘저 사람이 나사로를 사랑했던 것처럼 울고 있다. 그렇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실력으로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단 말인가? 저 사람은 나사로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죄인들의 사랑의 내용은 천양지차인 것입니다.

이제 나사로를 종으로 붙들고 있었던 사망이 어떻게 격파되는지 보세요.

(요11:33)

33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문상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통분히 여기다, 엠브리마오마이’는강한 분노와 불쾌감으로 호되게 꾸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망히 여기다,타라소오’도 역시 분을 못 이겨 크게 치를 떠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누구에게 화를 내신 것이지요? 마리아? 유대인?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사망의 세력에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은 화가 나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어차피 살려내실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눈물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에 사로잡혀 사망의 증상들을 겪어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시56:8)

8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 하였나이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을 했을 때 너무 견디기 힘이 들어 많이 울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했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은 다윗이 때려죽인 골리앗의 나라 아닙니까? 오죽하면 그 적국으로 피신을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아룁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아시지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서의 주의 책은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의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3:16)

16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 책에 기록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이 걷는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에 담으시고 그 눈물 병을 십자가에서 다 깨뜨려 버리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망에 압도되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의 눈물에 동참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의 병을 깨뜨리시는 십자가를 미리 힌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돌문을 치우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불신이 또 한 번 폭로되지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나는데 왜 문을 열라고 하느냐고 오히려 주님을 말립니다.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의 불신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굳이 무덤을 여시고 그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시체를 폭로하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 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덤 속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지금도 우리는 때때로 무덤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경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렇게 썩어가는 시체로서의 나사로의 상태가 폭로되자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빨아들여 그 사망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어 버리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사망에서 풀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억지로 추론해 낸 것이 아닙니다.

(요11:44)

44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수건이라고 번역이 된 ‘수다리온’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요20:7)

7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요한이 ‘수다리온’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을 하나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의로 결박되어 있던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시지요? 그 단어가 ‘압히에미, 휘파고’입니다. 어떻게 나사로가 죽음을 상징하는 수의의 결박에서 풀려나게 되는지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요18:8,12)

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하시니

12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님께서 자기를 결박하러 온 군대에게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시지요? 그 똑같은 단어가 바로 ‘압히에미, 휘파고’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결박으로 대신 풀려나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요한이 ‘압히에고, 휘파고’를 쓴 것은 죽은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의 결박에 의해 주어지게 되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힌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에 결박당하시고 정작 그 사망에게 물려 죽어야 하는 자들이 풀려나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건 11장 43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11:43)

43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기에서 ‘큰 소리로 부르다’라고 번역이 된 ‘크라우가조’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여섯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모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라’하고 외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요12:13,18:40,19:6,12,15) 그것은 사망에 물려있던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망과 사망의 열매들을 미워하십니다. ‘엠브리마오마이, 타라소’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와 불쾌감을 보시고도 계속해서 사망의 열매들을 탐닉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망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이 우리 안에서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여전히 사망의 종처럼 사시겠어요? 그래봐야 우리만 손해입니다. 우리는 그 사망의 열매들을 탐닉하면서 그것들이 주는 쾌락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곧 고통과 눈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경험해보셔서 아시지요?

그리고 아울러 주님은 그 사망에게 매여 종노릇하던 자들의 눈물을 모두 당신의 병에 담으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그 병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툼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문득문득 맛보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눈물이 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함께 울어주시며 이미 그 눈물 통을 박살을 내 버리셨다는 것 잊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에 지지 마세요. 그것들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